

# 기간내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 8월 말까지 사용해야

## 재난지원금 일문일답

카드사 등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  
카드 사용시 기존 카드혜택 동일  
기간안에 미사용시 국고 환수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과 관련한 일문일답.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주민등록표(3월 29일 기준) 상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 신용카드사 신청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금액도 확인할 수 있는가.**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청 화면에서 세대주 본인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기부금을 입력하지 않고 신청 화면을 닫아버렸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잘 신청됐을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버튼을 눌렀다면 기부금액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다. 신청 후 휴대전화 알림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도 신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카드사를 변경하거나 기부금을 수정할 수 있는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다른 카드사로 변경할 수 없다. 기부금 또한 신청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청 당일(오후 11시30분 이전)에 한해서 수

##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및 가맹점

- 백화점**  
신세계, 롯데, 현대, NC백화점, AK플라자 등
- 대형마트·대형 가전제품 매장**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LG베스트샵 등
- 온라인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 유형·위생·사행업종**  
일반·무도 유흥주점, 안마사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대인 서비스,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레저**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 대형 프렌차이즈**  
스타벅스, 다이소, 까사미아, 타이어뱅크, 아티제 등 \*본사 소재지에서만 사용가능
- 기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4대보험, 면세점, 교통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자료/여신금융협회

정 가능하다.”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등을 하나의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카드사의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원금과 함께 동일한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하나의 카드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카드사의 공지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하나의 카드로 여러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어떤 지원금부터 사용(차감)되나.**

“원칙적으로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사용(차감)된다. 다만 각 지원금마다 상이한 사용조건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카드 사용 시 차감순위가 바뀔 수 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이고 어떤 가맹점이 있는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 및 가맹점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든 카드사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각 사별 업종 분류 정책에 따라 일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제품 매장, 유흥업소 등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카드사 포인트 적립 등이 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포인트 적립, 전월 실적 적용, 청구할인 등 사용하는 카드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기부할 수도 있는가.**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전액 기부된다. 신청하면서 일부만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하면 올해 연말 정산 때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로 반영한다.”

**-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

“오는 8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기간 안에 못 쓰면 국고로 환수된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특성>

지급수단	지역제한	업종제한	사용기한	온라인 사용
신용체크카드	광역자치단체 (특·광역시·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아동돌봄쿠폰 제한 업종 수준	-8.31	온라인 쇼핑몰 사용제한
선불카드	지자체별 설정 ※광역 또는 기초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형	광역 또는 기초 ※ 기존 지역제한 유지	8.31까지 사용권장	
	모바일형			
	카드형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 기존 업종제한 유지	-8.31	

/자료=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 선불카드 수령 즉시 정보등록, 스미싱 유의

### 금감원 Q&A

####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분실·도난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신용카드, 상품권 등 지급방식 중 선불카드가 휴대하기도 좋고 이용업종도 바로 확인해 결제할 수 있어 저한테는 제일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불카드는 분실 시 위험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중 선불카드는 ‘무기명’이라는 특성 때문에 분실·도난을 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해 잔여 미사용 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도난에 대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명 선불카드의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그럼 사용 중 분실·도난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

하지 않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 등은 지자체별로 ‘이용 가능 기간’, ‘이용 제한 업종’, ‘이용 가능 장소’가 지정돼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불법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어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휴대폰 앱(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이 아닌지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기 전에 믿을 만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희주 기자



주계약 보험료 전부 돌려드려요

NH농협생명은 사망보험금에 더해 기존에 납부한 주계약 보험료 전부를 돌려주는 중신보험 ‘두플러스NH중신보험(무)’을 11일 출시한다. /NH농협생명

## “긴급재난지원금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신한카드 홈페이지·앱 등 서비스 지원

신한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PayFAN(신한페이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물론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신한저축은행 홈페이지와 앱(애플리케이션)

에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사용 즉시 적용금액과 잔액을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신한페이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주 기자

##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뜨는 수혜주는?

### 재난지원금에 ‘보복적 소비’ 전망 증권가, 편의점 업종 목표가 상향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 시작된다. 전 국민이 수혜 대상인 만큼 내수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혜주를 찾아나서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최근 한 달(4월8일~5월8일) 동안 내수주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졌다. 그간 대형 정보기술(IT) 일변도의 상승 흐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 해당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7.67%인 반면 정보기술업종 수익률은 6.63%에 그쳤다. 그 간극을 채운 것은 내수주다. 음식료품지수는 9.59% 올랐고, 필수소비재(9.10%), 금융(9.10%) 등 국내 매출이 높은 내수업종이 크게 상승했다.

이처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내수업종의 수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른바 ‘보복적 소비’가 발생할

### <코스피, 내수업종 지수 수익률>

(5월 10일 기준)

지수명	수익률	현재지수	전일비	거래량(천주)	거래대금(백만원)
코스피	7.67	1945.82	▲17.21	784,773	7,941,568
음식료품	9.59	3671.52	-29.21	59,743	191,820
KRX 필수소비재	9.1	310.66	▲2.11	56,078	596,338
금융업	9.1	310.66		56,078	596,338

/자료=한국거래소

것이란 기대감이다.

정성태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이 주된 업태인 소상공인 매출 추이는 3월에 전년 대비 25% 정도 감소했지만 4월 넷째 주에는 8% 감소하는데 그치는 등 빠르게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개학이 시행된 이후에는 소비 회복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한정된 만큼 주된 사용처인 도소매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편의점 업종의 목표가를 상향조정하는 추세다.

또 전통적인 내수주의 활약도 기대된

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단계적 이연수요의 증가에 따라 은둔형 소비에서 보복형 소비(쇼핑·레스토랑·핸드폰·가전 등), 활동성 소비(여행·콘서트·숙박) 등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 결국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부가가치통신망(VAN) 업계에도 화색이 돌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1위 사업자 나이스정보통신은 최근 한 달간 20% 가량 주가가 올랐고, 전자결제 수혜주인 KG모빌리언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도 연중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